

## 의약품 약국의 판매논란 주요 경과

- 1997. 6. 5. '경제규제개혁위원회'에서 단순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'98 상반기 시행한다고 의결
- 1997. 12. '의료개혁위원회'에서 의약품 약국의 판매 건의안 확정  
드링크류 등 자양강장변질제, 과산화수소·스프레이파스 등 외용의약품, 저함량비타민·미네랄 등 영양제, 소화제·해열진통제·지사제·진해제 중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구급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업소의 시설 기준, 구입자 연령 제한, 단순의약품 식별방법 등의 조치 강구
- 1998. 1. 31 국무총리실 산하 '규제개혁추진회의'에서 의료개혁위원회 건의안을 추진키로 의결
- 1998. 12 정부, 의료계, 약계,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'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' 및 '의약분업실행위원회(9차례)'에서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남용 및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
- 1998. 12 보건복지부, 8차례의 의약품분류위원회 논의 결과 의약품 슈퍼 판매는 오남용,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문제가 있으므로 허용 불가 결론
- 1999년 보건복지부, '의약부외품'을 '의약외품'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국민불편 해소와 오남용 및 국민 위해(危害) 가능성 방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이 적고 위해 우려가 없는 일부 의약품부터 단계적으로 '의약외품'으로 신중하게 재분류한다는 입장 발표

< 2000~4년 의약외품 지정 현황 >

- 2000 : 궤련형 금연보조제, 외용소독제, 외용 스프레이파스,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, 자양강장변질제 중 내용액제 등

- 2001 : 치아근관 세척·소독 외용액제, 코골이방지제 등
- 2002 : 치아미백 치아부착 첩부제
- 2004 : 방역용살충제, 제모제, 금연보조제 등

- 2006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 발표, 복지부 차관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2004년 일본 의약외품(15개 제품군 371품목) 수준으로 의약외품을 확대하겠다고 발언  
 ⇨ 결과 : 2007년 3품목(땀띠·젓무름용제, 피부연화제, 켈런형 금연보조제)으로 결정되어 의약외품으로 전환
- 07.11.25 제4차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 “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불필요, 약국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” 발언
-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,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‘소화제·정장제를 포함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
- 08.4.26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외품 확대를 포함한 815개 규제개혁과제 발표
- 08.5.20 대한약사회,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릴레이단식 돌입 및 본회 상임이사 및 시·도지부장 보건복지부 방문  
 ⇨ 보건복지부 “의약외품 확대에 있어 약사회와 협의없이 추진하지 않겠다”는 입장을 밝힘
- 09.12.15 기획재정부·KDI ‘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(의약부문)’ 개최하고,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주장
- 10.12.22 이명박 대통령, 보건복지부 2011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“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. 그러면 개운해진다. 미국 같은데 나가 보

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?”고 발언

- 11. 1.13 본회, 의약품 약국의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
- 11. 1.19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건의료 9개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약국 판매규제 완화(일반약 슈퍼 판매)를 포함하여 2011년 완료계획 보고
- 11. 1.23 의약품 약국의 판매 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·분회장 긴급 결의대회 개최
- 11. 4.27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‘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’ 발표
  -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, 심야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11. 5.31 대한약사회,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 제출
  - 심야시간 및 휴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약국이 평일(월~금) 주1회 밤12시까지, 일요일은 월1회 당번약국 운영
  - 복약상담이 항시 가능하도록 약사 연락처를 기재한 가정상비약 보관함의 순차적 무료 보급 추진
- 11. 6. 3 보건복지부,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발표
  -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약·일반약·의약외품 분류에 대한 재검토 및 본회에 심야 및 휴일 당번약국에 대한 책임있는 실천 요청(자료 후첨)
- 11. 6. 8 청와대, 의약품 약국의 판매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의약품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

- 11. 6.10 진수희 복지부장관, 현행 전문약·일반약 2분류에 약국의 판매약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언
  
- 11. 6.15 중앙약심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고 일반의약품중 의약외품 전환, 전문의약품-일반의약품간 재분류, 약국의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